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SCRIPTORY

묵상 주제를 소개합니다 (눅 5:20~6:11)
12월 17일 - 2018년 1월 6일
(총 18회)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SCRIPTORY** 제5 권 – 제18 호

창간일: 2014년 11월 2일

발간일: 2017년 12월 31일

발행처:  B2B Missions,
800 Roosevelt, Irvine, CA 92620
www.b2bm.org

인용성경

한글성경: 대한 성서공회에서 출간한 개역개정

헬리어 성경: Deutsche Bibelgesellschaft, D-Stuttgart 에서 출간한 Greek New Testament 4th edition (1993)

히브리어 성경: Deutsche Bibelgesellschaft, D-Stuttgart 에서 출간한

BIBLIA HEBRAICA STUTTIGARTENSIA (1997)

번역 및 해설

편집책임: Steve Kim (M.Div., Talbot School of Theology; D.Min Program, Talbot School of Theology)

편집위원: Sean Roh (M.Div., Talbot School of Theology; Th.M., Gordon-Conwell Theological Seminary)

Charlie Cho (M.Div., Talbot School of Theology; Th.M., Talbot School of Theology)

Jeonghan Lee (얼바인 온누리교회 집사)

이 큐티 자료는 회원 여러분들의 작은 정성으로 만들어 집니다. 여러분의 작은 정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파하는 힘이 됩니다. 일주일에 1 불 (한국 약 1000 원) 이상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을 원하시는 분은 B2B Missions 의 홈페이지 (www.b2bm.org) 를 방문하셔서 회원으로 가입해 주십시오.

이 책에 수록된 원어해석과 해설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정확한 해석에 대한 아이디어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의견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회원들에게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Copyright © 2016 by B2B Missions.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은 저자의 고유한 아이디어를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의 인용 또는 전제시 반드시 B2B Missions 또는 저자의 허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 (주일)

오늘의 본문 (롬5:20~21)

- ²⁰ νόμος δὲ παρεισῆλθεν, (율법이 개입했다)
ἵνα πλεονάσῃ τὸ παράπτωμα· (그 결과 죄가 더하여 졌다)
οὗ δὲ ἐπλεόνασεν ἡ ἁμαρτία, (그러나 죄가 많은 곳에)
ὑπερεπερίσσευσεν ἡ χάρις, (은혜가 넘쳤다)
- ²¹ ἵνα ὡσπερ ἐβασίλευσεν ἡ ἁμαρτία ἐν τῷ θανάτῳ, (사망 안에서 죄가 지배했던 것처럼)
οὕτως καὶ ἡ χάρις βασιλεύσῃ (그 결과 은혜가 지배한다)
διὰ δικαιοσύνης (의를 통하여)
εἰς ζωὴν αἰώνιον (영생으로)
διὰ Ἰησοῦ Χριστοῦ τοῦ κυρίου ἡμῶν.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그리스도인들은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아니 죄의 지배 아래 있을 수도 없다. 만약 우리가 아직도 죄의 지배 아래 있다면 결코 하나님의 자녀일 수가 없다. 그리스도인들이란 사망을 벗어나 생명에 속한 사람들이다. 다시 말해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 의로움을 얻은 자들이라는 말이다. 죄와 의는 절대 양립 불가능하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죄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는 뜻이고, 하나님께 속했다는 의미이다.

사도 바울은 사망 안에서 죄가 지배했던 것처럼, 은혜가 믿는 자들을 지배한다고 말한다. 여기서 바울이 죄와 은혜를 대비하고 있는 것이 흥미롭다. 죄의 반대는 의로움이다. 그런데 바울은 의로움이라는 단어 대신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의로움이 구원받은 자의 상태를 뜻하는 단어라면 은혜는 의로움의 근거가 되는 하나님의 선물을 의미한다. 그리고 죄는 인간의 한계를 설명하는 단어다. 인간이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는 본질이 바로 근원이 죄고, 죄의 결국은 사망이다. 역사를 통틀어 바로 이 죄가 사망 안에서 계속해서 인간을 지배해 왔다.

그렇다면 인간들은 어떻게 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예 죄를 짓지 않는 방법이다. 어쩌다 실수를 하거나 죄를 짓더라도 계속해서 의로운 행위를 함으로써 죄를 상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 사소한 죄는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으로 갚을 수 있고, 그보다 중한 죄를 지으면 주말마다 노숙자들을 돕거나 좀더 선한 일을 통해서 의를 쌓으면 된다고 생각한다. 그걸로 모자라면 몇 달, 아니 몇 년간 아프리카 오지 같은 곳에 가서 물질 문명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할 수도 있다. 실제로 유명인들 중에 물의를 빚은 분들이 사회 봉사라는 명목으로 소외된 이웃들을 찾아가 일정 기간 봉사 활동을 하기도 한다. 그런 방법이 세상적으로는 옳게 보일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진정성 있게 자숙하고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면 그들을 용서하고 다시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하나님과 어그러진 관계를 회복하는 데도 그런 방식이 통할까? 만약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회복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었고, 십자가를 지실 필요는 더욱 없었으며, 또한 무덤에서 부활하는 일도 없었을 것이다. 인간들 스스로의 힘으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굳이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그렇게 하실 이유가 없지 않은가? 그런데 이 일에 하나님이 직접 나

섰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면 구원의 문제는 인간이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해결하셔야 하는 문제임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끊임없이 자기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시도와 노력 자체를 죄라고 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않는 사람들과 같고 질타했다. 물론 사도 바울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그런 자들 중의 하나였다. 그는 자기 힘으로 열심히 의를 행했던 자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 하나님을 위하는 길이라 생각했다. 훗날 그는 자신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행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인간이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자기 열심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모든 시도들이 죄다. 뿐만 아니라 인간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 이름을 걸고 행한 일들 역시도 죄다. 신앙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겐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그 신앙 생활로 자신의 의를 내세우고, 교회나 사회에서 자기 이름을 내려 한다면 이는 하나님과 무관하게 자기가 의를 세우는 일이라 아니 할 수 없다.

의는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내는 포상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공짜 선물이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여기서 죄와 은혜를 대조하고 있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성도들은 결국 은혜로 영생에 이른다. 사망 안에서 죄의 지배를 받던 죄인들이 생명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의인이 되었다. 이는 그리스도인들의 실존에 관한 문제며 이는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 만들어 낸 절대 불변의 진리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훼손할 수 없다. 하나님의 아들은 성도들을 의롭고 거룩하게 하고자 십자가를 지셨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면서까지 인간들을 의롭고 거룩하게 했는데 아직도 인간들이 자기들은 의롭지 않고 거룩하지 않다고 여긴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성도를 구원하는데 실패했다는 말이 된다. 그리고 그 생각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역을 부인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인간들이 스스로를 바라볼 때 누구 하나 자신은 의로운 자라고 자신있게 말할 사람은 없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누구나 하자가 있기 마련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실패한 것인가? 대답은 ‘노(No)’다. 하나님은 인간을 의롭게 하는데 성공하셨다. 믿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셨다. 하나님의 기준은 인간들의 기준과 다르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도덕적 잣대로 나의 의나 타인의 의를 판단하지 말라.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로움을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신 적이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다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후대하시는 이유는 오직 하나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믿는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가? 그렇다면 안심하라! 우리가 그를 통해 생명을 얻었고, 우리는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다.

묵상을 위한 질문

당신은 지금 죄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은혜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당신이 성도로서 어떤 은혜는 입었나요?

성도가 죄에 머물 수 있을까? (월요일)

오늘의 본문 (롬 6:1~2)

- ¹ Τι οὐκ ἐροῦμεν,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할 것인가?)
ἐπιμένωμεν τῇ ἁμαρτίᾳ, (우리가 죄에 계속 머물고)
ἵνα ἡ χάρις πλεονάσῃ; (그래서 은혜가 넘칠 것인가?)
² μὴ γένοιτο.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
οἵτινες ἀπεθάνομεν τῇ ἁμαρτίᾳ, (죄로 인해 죽은 우리들이)
πῶς ἐπιζήσομεν ἐν αὐτῇ; (어떻게 여전히 그 안에서 살겠는가?)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바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역설하자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시비를 걸어 온 모양이다. 그럼 우리가 막 살아도 된다는 말이나? 우리가 막 살아서 죄를 넘치게 지으면 하나님의 은혜도 그 만큼 넘치게 받게 되는 것 아니냐? 바울은 이와 유사한 이야기를 3 장에서도 언급한 바 있다. 사실 은혜로만 구원 받는다는 말은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무책임한 사람으로 인식되게 할 위험이 있다. 남들에게 비난받는 것은 물론이고 구원받은 성도들조차 그렇게 느끼기 십상이다. 하지만 진정한 구원은 그러한 비난조차 감수할 수 밖에 없을 정도의 무력감에서부터 출발한다. 사도 바울은 누군가로부터 이런 소리를 들을 정도로 삶을 영망으로 산 사람이 아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 누구보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데 철저했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후에는 복음 전도에 여생을 바치며 살아갔다. 그런 그가 인간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로만 구원을 얻는다고 역설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그를 향해 어떤 누구도 도덕이나 윤리를 거론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인 셈이다.

하지만 바울은 그런 자기의 삶을 자랑하지 않았다. 윤리나 도덕을 내세워 남들을 힐난하지도 않았다. 도덕적으로 별 흠결이 없는 그가 오히려 자신을 죄인 중의 괴수라고 말한다. 공연히 그런 소리를 한 것도 아니고 애써 겸손한 척 하려고 그런 것도 아니다. 그는 자신이 정말 죄인 중의 괴수임을 깨달았다. 하나님은 인간들이 쌓은 의를 의로 여기지도 않으시고 인간들이 지은 죄를 인간들에게 책임지우는 분도 아니기 때문이다. 인간들끼리나 죄의 경중을 따질 뿐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나 동일하게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죄인일 뿐이다.

사도 바울은 질문한다. “우리가 죄에 계속 머물러 있고, 그 결과 우리에게 은혜가 넘칠 것인가?” 구원받은 성도가 죄에 머물러 있을 것인가? 사도 바울은 죄를 인간의 행위에서 비롯되는 결과로 보지 않았다. 그는 죄를 일종의 장소나 영역의 개념으로 이해했다. 다시 말해 죄가 통치하는 영역이 있고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영역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도 바울의 이 질문은 구원받은 성도가 죄의 통치를 계속해서 받을 수 있느냐에 관한 질문이다.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이다. 사망의 권세 아래 있다가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권세 아래로 옮겨진 자들이다. 다시 말해 통치를 받는 영역이 달라졌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구원 받은 성도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에 대해 아주 간결하면서도 단호하게 선언하고 있다. 골로새서 1 장 13-14 절을 읽어보자.

“⁴³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⁴⁴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골 1:13-14).

죄 아래 거한다는 말은 흑암의 권세 아래 있다는 말이다. 그 권세 아래 있는 자는 설령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 해도 그 행위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죄의 통치를 받게 마련이다. 언뜻 보기에 흑암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들이 더 선하고 사랑이 넘치는 사람으로 보일 수 있다. 솔직히 생명에 관한 불교의 교리가 기독교의 교리보다 훨씬 나은 것처럼 보인다. 물론 세상 사람들의 눈에 그렇게 보인다는 말이다. 불교는 원천적으로 살생을 금하고 있다. 부득불 살생을 해야 할 경우에는 철저히 가려서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 가나안 주민들은 그곳에 살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어린 아이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조리 죽임 당했다. 갓난 아기는 물론이고 임신부나 노약자들도 예외가 없었다. 우리는 여호수아를 읽으면서 여리고 성에서 편안히 잘 살고 있던 그곳 주민들이 제대로 싸워 보지도 못하고 모조리 죽음 당한 이야기를 통쾌한 눈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도대체 그들이 무슨 잘못을 했길래 그런 죽임을 당해야 하는가?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과연 여리고 성에 사는 사람들보다 의로웠는가? 인간의 시각으로 보면 도긴개긴이다. 광야 사십 년의 삶을 돌아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살던 사람들보다 의로운 사람들이라고 할 만한 근거는 전혀 없다. 이런 것들을 볼 때 기독교가 도덕과 윤리적 측면에서 다른 종교보다 더 낫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사도 바울도 그 점을 인정했다. 하지만 죄에 대한 성경의 시각은 인간의 시각과는 전혀 다르다. 그렇다면 도대체 죄란 무엇인가? 바울은 하나님이 인간들의 죄를 평가하는 기준은 행위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영역에 관한 문제라는 사실을 깨달은 자다. 흑암의 권세는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에게 미친다. 노아 시절에는 노아를 포함한 달랑 여덟 식구를 빼고는 모든 인간들이 흑암의 권세에 속했다. 노아의 삼촌도 그랬고, 노아의 조카들도 그랬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가족을 선택하는 순간 그들은 흑암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역으로 옮겨졌다. 노아와 그 가족이 의로움 경진 대회에서 1등에서 8등까지 차지한 게 아니다. 다시 말해 그가 남들보다 더 도덕적으로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는 말이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겨우 살아난 롯과 그의 두 딸도 그 도시에서 가장 의로운 사람들이 아니었다. 그 당시 소돔과 고모라에는 갓 태어난 아기도 있었을 것이다. 그 갓난아기는 이 세상에 태어나 호흡 몇 번 해 보고는 저 세상 사람이 되어야 했다. 그 어린 아기보다 롯과 그 두 딸이 더 의로운 자여서 구원받은 것일까? 아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 내셨다는 것, 그게 이유의 전부다.

이처럼 죄는 영역의 문제다. 성도는 그 권세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그곳에 머물 수가 없다. 죄의 통치를 벗어난 사람들이 어떻게 그 아래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전혀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아야 한다. 우리를 그 죄의 권세로부터 속량하여 하나님 나라로 옮기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셨다. 그런 우리가 어찌 이보다 더한 은혜를 바라겠는가? 더 이상 “딱 살아도 되나요?”라는 어처구니 없는 질문은 던지지 않길 바란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죄의 영역을 벗어나 의가 다스리는 곳으로 옮겨졌고, 사암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를 거룩한 무리, 즉 성도라 부르는 것이다.

묵상을 위한 질문

당신이 성도가 맞다면 당신은 죄에 계속 머무를 수 있습니까? 왜 그게 불가능한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당신은 계속해서 죄에 머무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나요? 그럴 때마다 당신은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받은 자들 (화요일)

오늘의 본문 (롬 6:3~4)

³ ἢ ἀγνοεῖτε ὅτι, (또는 깨닫지 못하느냐?)

ὅσοι ἐβαπτίσθημεν εἰς Χριστὸν Ἰησοῦν,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받은 우리는 누구나)

εἰς τὸν θάνατον αὐτοῦ ἐβαπτίσθημεν, (그의 죽으심 안에서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⁴ συνετάφημεν οὖν αὐτῷ (그러므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διὰ τοῦ βαπτίσματος (그 세례를 통하여)

εἰς τὸν θάνατον, (그의 죽음 안으로)

ἵνα ὡσπερ ἠγέρθη Χριστὸς ἐκ νεκρῶν (그 결과 그리스도가 죽음으로부터 일으킴을 받은 것처럼)

διὰ τῆς δόξης τοῦ πατρὸς, (아버지의 영광을 통하여)

οὕτως καὶ ἡμεῖς ἐν κοινότητι ζωῆς περιπατήσωμεν.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걷고 있다)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성도는 죄 아래 살 수 없다. 이는 엄청난 선언이다. 사도 바울의 이 선언은 하나님의 구원이 인간의 삶의 변화를 통한 구원이 아니라 통치 영역의 변화를 통한 구원임을 분명히 한다. 물론 하나님의 통치 영역에 들어간 사람들은 삶을 통해 하나님께 훈련 받으며 서서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로 변화해 간다. 많은 사람들은 그 과정을 성화의 과정이라 부른다. 성화란 도덕적으로 완전해지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성화는 훈련에 의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

바울은 “또는 깨닫지 못하느냐?” 라는 질문으로 말을 이어간다. 죄로 인해 죽은 우리가 어떻게 그 안에 계속해서 살겠는가? 라는 수사적 질문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바울은 다른 질문을 통해 설득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죽은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없다. 죄의 값은 사망이고 결국 그로 인해 죽었다면 모든 사람들은 이미 죄의 값을 받은 것이다. 따라서 죽은 자의 문제는 ‘죄를 행하느냐? 의를 행하느냐?’가 아니다. 죄든 의든 살아 있어야 행하고 말고 할 것 아닌가? 죽은 자는 아무 것도 행할 수 없다. 사도 바울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죄로 인해 죽은 자로 명명했다. 지금은 하나님을 믿어 새 생명을 얻은 우리들도 구원을 받기 전에는 죄로 인해 죽은 소망없는 자들 중의 하나였다. 그런데 하나님의 무조건적 은혜가 그 어둠의 권세,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것이다.

사도 바울은 다른 각도에서 구원받은 성도가 죄에 머물 수 없음을 설교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세례다. 세례는 물에 잠긴다는 뜻인데 죄의 몸이 완전히 물에 잠기는 순간 그 몸은 죽게 된다. 그리고 물에서 올라오는 순간 하나님을 향해 새 생명을 얻은 존재가 올라 오는 것이다. 세례 요한이 행한 세례를 통해 그 의미를 좀더 깊이 살펴보자. 세례는 공관복음에 모두 다 기록되어 있다 (참고: 요한복음은 세례의 구체적인 행위는 기록하지 않고 하나님이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세례를 행하도록 한 내용만 기록됨). 마가복음 1장 4절~11절을 읽어보자.

“4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⁵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⁶ 요한은 약대털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⁷ 그가 전파하여 가로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

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⁸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리라⁹ 그 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¹⁰ 곧 물에서 올라 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¹¹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막 1:4-11).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백성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 복음서는 요한의 세례를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라고 명명하고 있다. 사실 요단강 물에 한 번 몸을 씻는다고 죄가 사해진다는 것은 사실 율법에 완전히 위배된다. 율법에 따르면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짐승의 피를 흘려야 하기 때문이다. 히브리서는 율법에 따른 죄 사함의 문제를 이렇게 설명한다.

“율법을 좇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히 9:22).

어떤 죄인은 자신의 죄를 사함 받기 위해 요단강에 몸을 담갔다. 다른 죄인은 자신의 죄를 사함 받기 위해 짐승을 잡았다. 두 경우 모두 죄가 사해지는 효력이 있다면 둘은 결국 동일한 것이 된다. 이런 논리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본다면 마가복음 1장에서는 죄인이 아닌 예수님이 죄인들처럼 물에 자신의 몸을 완전히 담가 세례를 받으셨다. 그렇게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 땅에서의 공생애를 마감하셨다. 즉,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은 사건은 곧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에서 죽으신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은 자기를 대신하여 죽은 것일 뿐만 아니라 자기의 죄의 몸도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십자가에서의 연합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

“²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갈 2:20).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혔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받은 것이다. 요단강에서 각자가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세례를 받은 것이다. 그리스도가 우리 죄로 인해 죽으실 때 그에 연합되어 우리들의 죄의 몸도 함께 멸하여졌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다시 일으키심을 받을 때 우리도 함께 일어났다. 우리가 그의 부활에 연합된 것이다. 이처럼 세례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놀라운 신비를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들은 비로소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생명의 신비를 체험하게 된다.

묵상을 위한 질문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 세례는 어떤 것입니까? 당신에게 그 세례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우리가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걷고 있다 (수요일)

오늘의 본문 (롬 6:3~4)

³ ἢ ἀγνοεῖτε ὅτι, (또는 깨닫지 못하느냐?)

ὅσοι ἐβαπτίσθημεν εἰς Χριστὸν Ἰησοῦν,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받은 우리는 누구나)

εἰς τὸν θάνατον αὐτοῦ ἐβαπτίσθημεν, (그의 죽으심 안에서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⁴ συνετάφημεν οὖν αὐτῷ (그러므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διὰ τοῦ βαπτίσματος (그 세례를 통하여)

εἰς τὸν θάνατον, (그의 죽음 안으로)

ἵνα ὡσπερ ἠγέρθη Χριστὸς ἐκ νεκρῶν (그 결과 그리스도가 죽음으로부터 일으킴을 받은 것처럼)

διὰ τῆς δόξης τοῦ πατρὸς, (아버지의 영광을 통하여)

οὕτως καὶ ἡμεῖς ἐν κοινότητι ζωῆς περιπατήσωμεν.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걷고 있다)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의 실존을 새 생명으로 규정하고 성도는 누구나 예외없이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걷고 있다고 말한다. 알콜 중독자인 상태에서 그리스도를 믿었고 아직도 거기서 헤어지지 못하고 있는 분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이미 그리스도가 주신 새 생명 안에서 걷고 있는 상태다. 연신 입에서 담배 연기를 뿜어대며 ‘고통의 문제’ ‘순전한 기독교’ 등 명저를 쓴 기독교 영성의 대가 C.S. 루이스도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걸었던 분이다. 그는 평생 담배를 즐겼던 애연가로 유명한데 그는 단 한 번도 자신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금연해야 한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다. 생명은 인간의 행위에 원천을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와 부활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들도 근본적으로 죄인이다. 시는 동안 행위로 수많은 죄를 지었다. 게다가 죄로 인해 부끄러움을 당하면서도 여전히 그 행위를 버리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바울은 놀랍게도 그런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온전해 졌다고 선언하고 있다. 고린도 전서 6장 11 절을 읽어보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고전 6:11).

사도 바울은 성도를 씻음, 거룩함,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로 설명한다. 씻음이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씻었다는 말이 아니다. 다시 말해 몸을 닦는 목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우리가 양심의 악을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을 향해 돌아섰다는 것을 말한다. 사도 베드로는 세례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 씻음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벧전 3:21).

새 생명 안에 걷고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씻음을 받았다. 세상을 향해 있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여 돌리게 된 것이 세례다. 선한 양심이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인간은 늘 두 마음을 품고 있다. 사실 두 마음을 품는 것 자체가 악이다. 마음이 나뉘어져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기는 것이 악이다. 솔직히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 도리어 하나님을 이용한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다. 성도란 이렇게 씻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씻

음으로 이제는 그리스도의 새 생명 안에 있게 된 사람이다. 단지 머리에 물 몇 방울 적시는 의식만으로 세례를 받고, 새 생명을 얻으며, 성도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은 모든 인간들이 하는 행위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종교적 주술에 불과할 뿐이다.

새 생명 안에 걷고 있는 사람들은 거룩함을 얻은 사람들이다. 씻음이든 거룩함이든 뒤에 설명할 의로움이든 모두가 수동태다. 행위의 주체가 우리가 아니라 그리스도고 성령님이란 뜻이다. 아무런 능력이 없어서 절망 상태에 있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거룩하게 해 주신 것이다. 현재 나의 상태와는 무관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 그렇기에 성도라면 누구나 다 거룩한 존재다. 인간의 눈으로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 화려한 옷을 입고 매일 잔치를 벌이며 고급진 음식을 먹는 부자가 거룩한 자가 아니라 그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 부스러기로 연명하며 피부병으로 온 데 혈어있던 상처를 개가 핏도록 내버려 두고 있었던 바로 그 거지 나사로가 거룩한 자다. 성경 어디에도 그가 이 세상에서 한 번도 부자로 살았다는 이야기가 없다. 그의 피부병이 나았다는 기록도 없다. 그는 평생을 거지로 살다가 거지로 죽었다. 그런 그가 죽어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나사로는 비록 이 세상에서는 비참한 자로 보였지만 그는 새 생명 가운데에서 걸어난 사람이다. 그것이 성경의 비밀이다. 하나님은 외모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들보다 내면이 순결한 사람들을 원한다. 비록 사람들의 눈에, 아니 우리 스스로의 눈에 우리 자신이 세상에 물든 더러운 사람으로 비쳐질지라도, 그래서 그런 자기 모습이 너무도 수치스럽게 생각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다 하신다. 우리가 정말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

새 생명 안에서 걷고 있는 사람들은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 의의 권세로 들어 온 사람들이다. 그리스도를 통해 의로움을 얻은 자들이다. 자신의 노력으로 의롭게 되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 받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의롭다고 말씀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염치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은 사람들을 의롭다 하신다. 하나님의 의의 기준은 매우 단순하다. 오직 예수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상에서 이루신 그 의로만 판단하신다. 그렇기에 인간들이 만들어 낸 모든 의로움들은 배격된다. 물론 누구나 살아가는 동안 의롭게 살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는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들에게 보편적으로 요구되는 것이다. 어느 사회든 그 사회 고유의 윤리와 도덕이 있다.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는다고 해서 세상에서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된다. 어느 누구도 타인에게 함부로 대할 권리가 없기 때문이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존중하는 것은 비단 성경만의 가치가 아니라 인간이라면 당연히 따라야 할 규범이고 의무다. 하지만 새 생명 가운데 걷고 있다는 것은 그런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그 말은 우리가 생명 안으로 들어와 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새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새 생명은 우리의 존재 자체를 완전히 변화시키기 때문이다. 바울은 우리의 정체성을 이렇게 선포한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고후 5:17).

진정 그리스도인인가?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러면 당신은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로 변해가는 과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완성된 피조물이다. 검은 색 옷이 점점 하얗게 변해가는 과정이 아니라 이미 하얗게 된 상태라는 말이다.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된 사람들을 성경은 성도라 부른다. 우리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고 새로운 생명 안에서 걷게 하셨다. 당신이 성도라면 당신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것과 무관하게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걷고 있다.

묵상을 위한 질문

당신은 어떻게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걷고 있는 자가 되었습니까? 무엇으로 그 사실을 알 수 있나요?

우리 죄의 몸이 멸망했다 (목요일)

오늘의 본문 (롬 6:5~7)

- ⁵ εἰ γὰρ σύμφυτοι γεγονόμεν τῷ ὁμοιώματι τοῦ θανάτου αὐτοῦ,
(만약 우리가 그의 죽으심의 모습에 일치되었다면)
ὁλλὰ καὶ τῆς ἀναστάσεως ἐσόμεθα. (또한 그의 부활의 [모습이 될 것이다].)
- ⁶ τούτο γινώσκοντες ὅτι ὁ παλαιὸς ἡμῶν ἄνθρωπος συνεσταυρώθη,
(우리가 우리 옛 사람이 십자가형에 처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ἵνα καταργηθῇ τὸ σῶμα τῆς ἁμαρτίας, (그 결과 우리 죄의 몸이 멸망했다)
τοῦ μηκέτι δουλεύειν ἡμᾶς τῇ ἁμαρτίᾳ. (더 이상 우리가 죄에 의해 종노릇하지 않도록)
- ⁷ ὁ γὰρ ἀποθανὼν δεδικαίωται ἀπὸ τῆς ἁμαρτίας,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함을 얻었다.)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사도 바울은 매우 집요할 정도로 독자들을 설득할 때까지 계속 설명을 이어간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 그리고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다. 우리는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바라보는 관객이 아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안타까워 하면서 그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람들도 아니다.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진정한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이 정도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바울은 우리를 한 걸음 더 십자가 앞으로 이끈다.

바울은 삼단논법으로 우리와 그리스도 간의 연합을 설명하고 있다. 십자가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죽으심 이상의 사건이다. “만약, 우리가 그의 죽으심의 모습에 일치되었다면”이라 말은 가정이라기보다는 현실을 강조하는 말이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된 자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사건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뿐 아니라 우리의 죽음을 의미한다. 같은 논리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뜻한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도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 우리도 부활하여 새 생명을 얻은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으로 우리도 그와 함께 죄의 권세인 사망에 이르렀다. 이제는 그 사망을 극복하는 일만 남았다.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도들이 사망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을 보여주는 예표적 사건이 된다. 우리는 그 생명의 부활에 연합된 자들이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삶이 이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반드시 부활할 것에 대해 이렇게 역설했다.

“¹⁹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²⁰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²¹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²²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²³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²⁴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고전 15:19-24).

바울은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다고 말했다.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 사망이 왔고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새 생명의 부활이 왔음을 설명하고 있다. 사망은 죄로 인해 온다. 우리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 다시 말해 사망을 이기고 새로운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예수님은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러 죽으심을 택했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 계신 채로 무덤에서 나오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새 생명은 존재하지 않는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에 대한 소망을 준다. 그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는 순간 그 생명 가운데로 들어가게 된다. 그것이 연합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에도 연합했다. 그리스도가 죽음을 극복해 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지니게 된 것이다.

우리의 옛 사람은 십자가형으로 죽음 당했다. 우리의 죄의 몸이 멸해졌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에 종노릇할 수 없다. 죄의 지배를 받고 안 받고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우리는 이미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 말에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지으며 살기 때문이다. 조금이라도 불리하다 싶으면 거짓말로 얼버무리고, 자신에게 불리하면 반칙도 다반사다. 남의 이야기를 가십거리 삼는 걸 즐기고, 문제가 생기면 특하면 남들에게 원인을 떠넘기기 일쑤다. 세상 사람들만 이렇게 사는 게 아니다. 성도라는 이름을 가진 우리들도 똑같다. 게다가 우리뿐 아니라 소위 믿음의 선진들이라고 말하는 구약의 많은 인물들도 그랬다. 아브라함만 봐도 그렇다. 그의 삶에서 어떤 선한 게 있는가? 일신의 안위를 위해 아내까지 다른 남자에게 넘긴 비겁한 사람이 아브라함이다. 그것도 두 번씩이나 말이다. 분명 이삭이 태어날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마엘이나 잘 크게 해달라며 속으로 웃었던 사람이다.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의롭다 함을 주셨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떤가? 삶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다고 자신할 사람이 과연 있거나 할까? 겉으로 보이는 삶은 그렇다고 치자. 속으로 정죄한 것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속으로 남을 비난하거나 판단하고, 속으로 간음하고, 속으로 저주하고 살인한 것은 어찌할 것인가?

성경은 그렇게 하자 많은 우리를 성도라고 부른다. 왜냐하면 그 모든 하자들을 하나님은 더 이상 죄로 여기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성경에서 죄의 몸이 멸해졌다는 말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법적, 윤리적으로 완전한 사람이 되었다는 걸 뜻하지 않는다. 죄의 지배를 받는다는 말은 하나님이 자기 맘대로 살도록 방치해 두었다는 말이다. 하나님은 믿지 않으면서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의롭게 되려고 무던히 애쓰는 사람, 자신의 명예에 작은 흠결이라도 나는 것을 참을 수 없는 완벽한 사람들은 죄의 권세 아래 있는 자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를 우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반면에 성도는 그 모든 헛된 노력들로부터 해방된 사람들이다.

바울은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함을 얻었다”고 선언한다 (롬6:7). 이 말은 참이다.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났다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다는 말과 같다. 하나님 앞에 산 자들은 누구나 의로운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 주셨다. 그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설 수 있게 된 것이다. 아직도 자신의 흠결로 인해 힘들어 하는 분들이 있는가? 아직도 그 흠결을 스스로의 노력으로 가리려 하는 분들이 있는가? 그 모든 애씀을 내려 놓으라. 스스로 의롭게 되려고 애쓰는 것은 죽은 자들의 모습이다. 오히려 자신의 애씀을 내려 놓고 그리스도를 힘 입는 것이 새 생명을 입은 성도의 자세다. 성도인가? 그렇다면 누가 인정하든 하지 않든 당신은 죄의 몸이 온전히 멸해진 사람이다.

묵상을 위한 질문

당신은 죄의 몸이 멸해졌음을 믿습니까? 그 결과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었나요? 어떻게 그런 일이 당신에게 일어나게 되었나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 것을 믿는다 (금요일)

오늘의 본문 (롬 6:8~9)

- ⁸ εἰ δὲ ἀπεθάνομεν σὺν Χριστῷ,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πιστεύομεν ὅτι καὶ σὺζήσομεν αὐτῷ, (우리가 그와 함께 살 것을 믿고 있다)
- ⁹ εἰδότες ὅτι Χριστὸς ἐγερθεὶς ἐκ νεκρῶν οὐκέτι ἀποθνήσκει,
(죽음으로부터 일으키심을 받는 그리스도가 더 이상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θάνατος αὐτοῦ οὐκέτι κυριεύει. (그의 죽음이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한다)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그리스도와 의 연합은 기독교 신앙의 절정이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아직 믿음에 입문조차 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 이 세상의 문제들과 하나님의 문제를 혼동해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 사실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많은 분들이 십자가 이야기, 부활의 이야기보다는 이 세상에서의 부, 명예, 건강 등에 관심을 둔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자신들을 보호하고 있음을 자기에게 일어난 기적같은 일에서 찾는 경향이 있다. 불치병에 걸렸는데 하나님께 매달렸더니 고침 받았다는 사람들이 있다. 물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되었을 수 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훨씬 많다. 그들의 간절할 기도에도 불구하고 병은 깊어만 가고 끝내는 세상을 떠나기도 한다. 치유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라면 분명 그것은 보편적인 현상이어야 한다. 어떤 이들은 열심히 기도했더니 사업이 번창했다고 말한다. 하나님은 신실한 사람들을 도와서 이 땅에서 성도들을 부유하게 만들어 준다고 믿는다. 정말 그럴까?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훨씬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빈곤에 허덕이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간절하게 기도해도 죽을 사람은 죽고, 망할 사람은 망한다. 이 땅에서의 성공 여부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믿음에 이르지 못한 사람일 확률이 매우 높다. 아니 좀 더 신랄하게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다.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것으로 한 사람의 신앙을 평가할 수는 없다. 현상이 같다고 본질 또한 같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면 장님 거지인 청년보다는 하나님의 율법을 꼬박꼬박 지키며 살았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더 하나님의 자녀다워 보인다.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혀 온 여인보다 그를 잡아 온 사람들이 더 믿음있게 보인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인간들 눈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사람이든, 간음을 한 여인이든, 그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이든, 하나님께는 모두가 동일한 죄인이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바로 내면의 신앙을 보면 된다. 밖으로 드러나는 축복된 삶이 아니라 내면의 변화가 관건이다. 죄책감과 수치심으로 잠 못 이루던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죄책감에서 해방되고 수치심이 사라진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산 자의 모습이다. 본질이 현상을 지배하고 있는 상태, 그것이 하나님께 속한 자의 모습이다. 여전히 과거의 삶이 자기의 발목을 잡고 있고, 현재 지은 죄들로 인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고, 그 죄를 씻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면 그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는 아직 진리에 이르지 못한 자다.

사도 바울은 생명의 지배를 받기 위해 전제되어야 할 것이 있다고 말한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다. 우리의 죄의 몸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다. 그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새로운 생명은

있을 수 없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나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고, 죄의 근원이 되는 나의 육신이 십자가에 못박히는 것이다. 죽은 사람은 말이 없다. 죽은 사람은 죄책감도 없고 수치도 없다. 죽은 사람에게 죄를 물을 수도 없다. 세상에서도 죄를 짓고 쫓기던 사람이 죽은 채로 발견되면 그걸로 사건은 종결된다. 그에게 죄를 물을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 죄의 몸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사실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² 그 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³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 었더니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⁵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⁶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 나”(엡 2:1-6).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었다. 그런 우리의 죽음에 그리스도가 동참하셨다. 그가 죽을 이유는 하나도 없다. 예수 님이 죽으신 이유는 오직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다. 하나님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엡2:5).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우리가 죽은 후에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죽고 나면 우리가 천국에 있었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은 여전히 육신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 사실을 감지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히 죽지 않는 새 생명을 주셨다. 그리스도가 다시 죽지 않듯 우리도 다시는 죽지 않는다. 성도는 어떠한 경우라도 더 이상 죽음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죽음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말은 죄가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한다는 말이다. 성도는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의의 지배 아래 있으며, 사망의 권세 아래 있지 않고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간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배우고 익힌 것으로 끊임없이 자신과 타인의 행위를 판단하고 정죄한다. 우리들이 죄로 여기는 것들은 모두 살아 오면서 경험했던 것들이다. 어떤 사회든 인간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법적, 도덕적 장치들이 있으며 거기서 벗어나면 죄가 된다.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가 그러한 인간 사회 공동체의 윤리를 모두 지키고 아무런 하자가 없이 온전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나를 지배했던 그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될 것을 선언한다. 자신이 속한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열심히 살고 질서를 지키고 선한 삶을 살되 그것을 가지고 의의 경중이나 죄의 여부를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다. 하나님의 기준은 인간의 기준과 완전히 다르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의 기준으로 인간을 판단하신다. 그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새생명을 얻은 사람이다. 그 사람은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성도인가? 그렇다면 당신은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의에 속했고 새 생명 가운데 있다. 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묵상을 위한 질문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당신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되었나요?

죄 안에서 죽은 자로 여긴다 (토요일)

오늘의 본문 (롬 6:10~11)

- ¹⁰ ὁ γὰρ ἀπέθανεν, (그가 죽었다)
τῇ ἁμαρτίᾳ ἀπέθανεν ἐράτοξ (그가 죄 안에서 단번에 죽었다)
ὁ δὲ ζῆν, (그가 살았다)
ζῆν τῷ θεῷ. (그가 하나님 안에서 산다)
- ¹¹ οὕτως καὶ ὑμεῖς λογιζέσθε ἑαυτοὺς [εἶναι] νεκροὺς μὲν τῇ ἁμαρτίᾳ
(그러므로 우리들도 스스로를 죄 안에서 죽은 자로 여긴다)
ζῶντας δὲ τῷ θεῷ ἐν Χριστῷ Ἰησοῦ.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 살고 있기 때문에)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가 죄 안에서 단번에 죽었다. 단번에 죽었다는 말은 더 이상 죽음이 없다는 말이다. 더 이상의 죽음이 필요없을 뿐만 아니라 단 한 번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런 뜻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 의미가 매우 복잡적이다. ‘단번에’라는 말의 헬리어 원어는 ‘에파파크’ (ἐράτοξ)다. 이 단어는 단지 한 번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한 번의 행위에 모든 것을 포함한다는 뜻을 지닌다.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단 하나의 수단으로 해결할 때 사용하는 단어다. 이 단어는 성경에 다섯 번만 사용되었는데 로마서 6장 10절과 고린도 전서 15장 6절 그리고 나머지 세 번은 모두 히브리서에서 사용되었다. 히브리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단지 한 사람의 죽음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러지는 화목 제물로 설명한다. ‘에파파크’ (ἐράτοξ)가 사용된 히브리서 말씀 세 곳을 찾아서 그 의미를 좀 더 깊게 알아보자.

“저가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러 이루셨음이니라”(히 7:27).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 가셨느니라”(히 9:12).

“이 뜻을 좇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히 10:10).

예수님은 자신을 단번에 드리셨다. ‘단번에’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모든 사람이 혜택을 받는다는 의미와 함께 더 이상의 희생 제사가 필요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대신하여 죽으셨을 뿐 아니라 이것으로 더 이상의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게 만드셨다. ‘에파파크’ (ἐράτοξ)는 효력의 미치는 범위가 매우 광범위함을 의미한다. 믿는 모든 사람이 그 혜택을 받는다는 말이다. 또한 그 효력이 영원하다. 이담으로부터 이 세상이 종말할 때까지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또한 한 사람을 기준으로 할 경우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지은 모든 죄에 대해 효력을 미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단 한 번의 믿음으로 취소될 수 없는 영원한 구원의 영역으로 들어간 것이다.

예수님이 단번에 죄 안에서 죽으시고 새 생명으로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사셨고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다. 우리는 그의 죽으심에 연합되었다. 그의 죽으심에 연합되어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받았고 단번에 거룩함을 입게 되

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 그런데 살아 난 곳이 다름 아닌 하나님 안이다. 그 안에는 사망도 없고 죄도 없다. 새 생명을 갖는 즉시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되었고, 거룩함을 입었으며,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 어떠한 경우라도 그 안을 벗어날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이 거부할래야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바울은 우리가 스스로를 죄 안에서 죽은 자로 여긴다고 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의해 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은 죄 아래 살 수 없다.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은 현실이고 실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떠한 경우라도 사망을 향할 수 없다. 죄가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직도 믿는 사람들 중엔 죄에서 벗어난 것이 맞냐고 의심하는 분들이 있다. 그런 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하고자 한다. 앞서 했던 동일한 이야기를 여기서 반복해야겠다. 사도 바울도 같은 말을 반복해서 쓰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다. 그것이 안전하기 때문이다 (빌 3:1참조).

우리가 인식하는 죄와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죄는 완전히 다르다. 인간이 의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크나큰 죄일 수 있고, 우리가 죄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것도 아닐 수 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피조물들끼리 만든 사회 규범으로 인간을 정죄할 하등의 이유가 없지 않은가? 많은 분들은 성경에 기록된 율법을 근거로 내세우기도 한다. 하지만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이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지는 않는다. 그 율법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주어졌다.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율법을 온전히 지켜내는데 실패했고,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나라를 잃는 수모를 겪기도 했다. 놀랍게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게 된 것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참칭하고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또한 그들의 눈에 비친 예수님은 안식일을 무시하고, 정결 의식을 따르지 않는 이단이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우를 범했다. 인간들 생각으로는 의로운 행동을 했지만 그 일은 결과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의 악을 저지른 셈이었다. 바울도 로마서에서 이렇게 충고한다.

“네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의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책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롬 14:22).

우리 눈에 옳게 보이는 게 정의가 아니다. 우리가 자신을 정죄하고 타인을 정죄하는 그것조차 버린 것을 사망이라 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말은 모든 정죄가 사라졌다는 걸 뜻한다. 살아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죽은 자들이다. 당연하지 않은가? 어찌 죄와 의로움이 함께 할 수 있고, 사망과 생명이 함께 할 수 있단 말인가? 성도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 살고 있는 사람이다. 다시 말해 성도란 사망에서 벗어났고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들이다. 더 이상 죄 문제로 왈가왈부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효력을 무력화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그렇다면 그리스도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생명을 누림이 마땅하다.

묵상을 위한 질문

예수님이 단번에 죽으심으로 당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스스로를 죄 안에서 죽은 자로 여기게 되었나요? 그 사실이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